

濟州島 堂神神話의 構造와 意味

張 籌 根*

I. 머리말

한국의 文獻神話에 巫俗性이 강하다는 것은 論者들이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神話學界에는 「上古代의 王權神話는 王祖의 本풀이」라는 命題가 있어왔다. 즉 「巫俗神話와 王權神話 사이에는 原形과 分派形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¹⁾ 그러한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事例가 제주도의 堂神神話와 三姓始祖神話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堂神神話들에는 一定한 共通 構造性이 原形으로서 존재하며, 三姓神話도 그 한 類形으로서 文獻上에 記錄 定着됨으로써 分派形을 이룬 상황은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本풀이의 3大分類 中 堂神本풀이단을 總括적으로 들어서 그 基本構造와 意味를 살피기로 하겠다. 이것은 堂神本풀이의 歷史性과 韓國 文獻神話의 理解에도 중요한 視角을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II. 덤데스의 北美인디언 說話形態論

덤데스(Alan Dundes)는 北美인디언의 모든 說話를 8개의 motifme의 相互連結로 된 4개의 構造類型으로 歸納 分析한 바가 있었다. 여기서는 그 중

* 경기대 교수·민속학

1) 金烈圭, 神話學的 側面에서 본 韓國思想의 源流, 民族文化의 源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 115.

가장 간단한 類型 하나만을 들어서. 그 理論 體系의 성격만을 잠깐 엿보아 두기로 하겠다.

즉 缺乏(Lack, 略號 L)—缺乏의 解消(Lack Laquidated, 略號 LL)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怪物이 世界の 물을 다 가두었다(L)」 「雄英이 怪物을 죽이고 물을 放出했다(LL)」는 것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콜롬비아人是 눈도 입도 없었다(L)」 「그들은 냄새를 맡는 것으로써 먹는 일로 삼았는데, 코요테가 그들의 눈과 입을 열어 주었다(LL)」는 설화도 있다. 이들은 다 어떤 「缺乏(L)—缺乏의 解消(LL)」라는 상태의 連結로 된 같은 단순한 형태로 歸納될 수가 있다. 참고로 다음에 그 8개의 motif의 4개의 連結構造 類型들만을 들어두기로 한다.

- ① 缺乏(L)—缺乏의 解消(LL)
- ② 禁止(Int)—違反(Viol)—結果(Consq)—脫出의 試圖(AE)
- ③ 缺乏—缺乏의 解消—禁止—違反—結果—脫出의 試圖
- ④ 缺乏—成功(Dct)—欺瞞(Dcpn)—缺乏의 解消²⁾

던테스는 北美 인디언의 說話들은 결코 motif들이 멋대로 우연하게 集成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固定된 構造性에 의해서 形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北美大陸은 地域도 방대하러니와, 說話資料도 유럽 다음으로 방대하게 蒐集되어 있다. 그리고 例컨대 그린랜드 說話와 캘리포니아 西南部의 說話는 도저히 同一世界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만큼 差異가 많다고 한다.³⁾

그래서 던테스의 形態論이 高度로 抽象化되고 歸納한 體系라고 해도, 그 방대한 수량의 說話들을 다 包括할 수 있는 것인지, 미처 檢索할 거를을 가지지를 못하겠다. 그에 比하면 濟州島는 地域도 좁으러니와 堂神本풀이만이면 수효도 7~80편 정도로 매우 적다. 반드시 던테스의 理論을 따를 것도 없다. 다만 거기서 다소간의 힌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여기서는 필

2) Alan Dundess, Structural Typolgy in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The Study of Folklore, 1965, pp.206-215.

3) Stith Thompson, The Folkta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 299.

자 나뉘므로 堂神神話의 共通構造를 따로 찾아보기로 하겠다.

Ⅲ. 堂神神話의 主要 構成要素와 그 連結構造

堂神本풀이의 全般的 傾向과 主流들을 따라서 그것을 歸納 要約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6개의 主要 構成要素와 4개의 連結構造形을 設定하게 되었다. 먼저 그것을 提示하고 보기로 하겠거니와 여기에는 例外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前提되어야 하겠다.

④ 起源形; ① 男神의 發出만이나, ② 女神의 入島만으로 形成되는 것.

④ 基本形; ① 男神의 發出—③ 座定經緯 또는 ② 女神의 入島—③ 座定經緯로 形成된 것.

④ 成長形; ①—②—③↔④ 結婚

④ 完成形; ①—②—③↔④—⑤ 食性の 葛藤과 別居—⑥ 追放된 子神의 海中武勇譚

A) 起源形

제주도 堂神들의 出現方式에서는 ① 男神들은 島內에서 솟아나고 ② 女神들은 外部에서 入島한다는 것이 매우 많고, 그것이 뚜렷한 한 傾向을 이룬다.⁴⁾ 舊左面 松堂의 서천국은 「알손당 고부니막루」에서 솟아나고, 細花里의 천조또는 「한로靈山 지질개 白鹿潭에서」 솟아난다. 金寧 큰堂 本郷本풀이에 서는 3姉妹神이 「江南天재國 정조國 안까름에서 솟아나서」 入島한다.

이때 男神의 湧出에는 다소간의 山岳崇拜性도 보이고, 女神은 江南天子國, 龍王國. 서울 등으로 4面の 바다에 대한 信仰性이나 神話의인 想像性이 보인다. 이 起源形들은 단순히 神의 本만이 풀이되고, 여기에 그 職能, 祭日, 祝願詞들이 덧붙여도 5,6行 정도밖에 안되는 短篇들이다. 아직 아무런 敘事性이 없는데 이런 유형도 꽤 많다.

B) 基本形

4) 玄容駿, 濟州島巫俗의 研究, 東京, 第一書房, 1985, p. 214.

男女神들도 더러 ① 솟아나고 또 ② 入島하면 어디에진 座定해서 人間의 祭物을 받아먹고 살아가야 한다. 이 ③ 座定經緯에서 神話다운 基本的인 敘事性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는 射矢卜地로서, 이것은 사냥과 肉食을 하는 男神의 경우가 많다. 橋來里 ㄷ릿堂神本풀이나, 西歸里本鄉本풀이 등에도 보인다.

둘째는 神이 座定했으나 마을에서 알지 못하니 凶驗과 災難을 주어서 알리고 祭物을 받으며 座定을 굳히는 방법이다. 이것은 舊左面 細花里의 금상님처럼 男神 武將의 경우도 있으나 女神에게 더 많다. 高光敏은 6편의 處女堂神 本풀이만을 묶어서 연구하고, ① 不運한 처녀가(起: 狀況提示部), ② 원통하게 죽고(承: 怨死部), ③ 凶驗으로 호소하여(轉: 伸冤部), ④ 信仰民의 奉祭로 座定한다는(結: 坐定部) 것이 그 共通構成이라 맺고, 그 形成要因과 意味들을 詳論하였다.⁵⁾ 이것은 堂神本풀이 全體의 機成面에서 볼때 凶驗을 주고 알리는 座定經緯譚으로 여기서는 看做하고자 한다.

세째 座定方法으로는 西歸里本鄉本풀이처럼 「먹구들과(窟)에 좌정하니 이제는 시내방川이 굽어지고, 우호론 쇠발소리가 들기 싹프고, 개소리 뚝소리가 들기 싹프고, 다시 引導를 시키라」하고 마을 사람에게 神의 座定處다운 淨한 곳에 안내시키는 방법들도 있다.

C) 成長形

例外로 ① 男神이 入島하고 ② 女神이 島內서 탄생하는 반대의 경우들도 물론 없지는 않다. 그래서 男女神은 만나면 결혼을 하는 것도 人間과 같다. 舊左面 細花里의 백주또와 금상님처럼 이 ①—②—③↔④의 連結形으로 끝나는 本풀이들도 있다. 이때 먼저 座定한 女神 백주또를 뒤에 금상님이 찾아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③↔④의 순서는 엇갈리는 수가 많고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三姓神話도 그 構成이 成長形에 속하나 本풀이는 三姓神話처럼 원만하지는 못하다. 坪垵里 堂神 명동소친국처럼 宋氏할당과 오술령이 따님애기를

5) 高光敏, 濟州島 處女堂 本풀이 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2, p. 37. p. 62.

거느리는 一夫多妻로 전개되는 경우도 적지않고, 또 많은 葛藤을 內包한 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D) 完成形

完成形은 위의 갈등이 끝내 露出되면서 다시 長篇化한다. 그 갈등은 西歸里 本郷本풀이처럼 愛情의 갈등도 있으나 ⑤ 食性の 갈등과 別居가 많다. 그것은 또 男神의 肉食과 女神의 米食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데 반대로 女神의 豚肉食으로 인한 別居로 2次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⑥ 追放된 子神의 武勇譚도 얹혀서 복잡하고 多樣해지나 여기에는 어떤 順次的인 構造性이 보인다.

松堂本풀이의 경우 먼저 ①—②—③—④의 連結로 結婚한 女神의 勸農으로 夫神이 밭을 갈다가 ⑤ 農牛들을 다 잡아먹고 시비가 벌어져서 別居한다. 여기서도 쫓을 거느린 父神을 찾아갔던 ⑥ 子神은 버릇없다고 追放되어서 龍王國에서 海中武勇潭을 전개하고 돌아온다. 이것이 松堂, 金寧 피내곶 堂, 濟州市 내왓당 첫조또本풀이에 고루 나타나서 6, 7편 밖에 안되는 完成形中 4, 5편이 單調롭게도 꼭 같은 줄거리를 形成하고 있다.

兎山웃堂(일찍또, 龍王女神, 治病神)의 경우는 海中武勇의 功으로 子神이 데려온 龍王女가 다시 豚肉食性으로 2次的 別居를 當한다. 이러한 豚肉食性으로 不淨하다고 別居를 당하는 要素만으로 構成된 月汀里의 서당(幼堂) 할망本풀이같은 것들도 있다. 결국 兎山웃堂의 경우는 ①—②—③—④—⑤—⑥의 連結에 다시 한번 ⑤ 食性の 갈등과 別居가 덧붙으나 그 前 기본 줄거리는 이것도 역시 松堂本풀이와 꼭 같다. 그리고 이렇듯 豚肉食性으로 別居 당하는 女神들은 일곱 아이를 낳은 治病神으로 풀이된다.

IV. 三姓神話와 堂神本풀이의 歷史性

먼저 가장 오랜 正史中 高麗史의 三姓神話を 보기로 한다.

耽羅縣 在全羅道海中 其古記云 太初 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 長曰良乙那 次曰高

乙那 三曰夫乙那 三人游獵 皮衣 肉食 一日見 紫泥封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隨來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以來 爾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高麗史 志卷十一 地理 全羅道)

이 構成이 ①男神의 發出一②女神의 入島一③結婚↔④座定經緯의 連結構造인 ㉔ 成長形과 같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口傳하던 本풀이가 高麗史에 記錄 定着된 셈인데, 그 前段階에서 耽羅縣에 傳하던 어떤 「古記」가 있었고, 그것이 引用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高麗史 地理誌는 梁誠之의 著述로 지적되고 있다.⁶⁾

韓國의 族譜는 唐·宋代에 中國에서 整備된 것을 高麗中葉에 특히 巨門閻族들이 먼저 筆寫本으로 導入했고,⁷⁾ 그 최초의 刊行은 朝鮮 成宗代의 安東權氏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위 三姓神話의 「古記」引用은 그 族譜의 祖上의 來歷 대목의 引用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口傳의 本풀이가 아직은 筆寫本 族譜에 기록되었다가 正史의 印刷本으로 定着된 過程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巫俗神話의 構造가 原形으로서, 그 成長形을 分派形으로 王權神話로서 定着시킨 과정도 아울러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三姓始祖들은 爵位를 받은 옛 耽羅國의 宗主權者의인 存在였으니 그것은 準王權神話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머릿말에 引用했던 대로 「王權神話는 王祖의 本풀이」라는 命題도 여기서 實感하게 된다. 또 同時에 이상을 통해서 高麗時代에는 堂神本풀이의 成長形들까지도 이미 傳承되고 있었다는 그 悠久한 歷史性도 確認하게 되는 셈이다.

6) 李弘植, 國史大事典 上, 1963, p. 115.

7)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1948, p. 66-70.

8) 同上, p. 71-73.

V. 主要 構成要素들과 構造의 意味

堂神神話들의 이상과 같은 悠久한 歷史性的 確認은 그 主要 構成要素들과 構造에도 深遠한 意味를 부여하게 된다. 먼저 ① 男神의 獵出 游獵 皮衣 肉食은 現在도 一級 사냥터인 濟州島의 男性들에 의한 土着 狩獵文化의 反映이다. 「皮衣」는 本풀이에는 「지달과 알통(地狸 下衣) 산달과 옷통」으로 표현됐고, 최근에 博物館들에 蒐納된 民家の 山쟁이 옷들은 개가죽옷들이었다. 이러한 文化的인 反映에 그 獵出에는 山岳崇拜性이 보인다는 것을 前記했다.

② 女神의 入島는 龍王國 江南天子國들에서가 많았다. 이 女神들은 이런 나라에서 神秘의 符術들을 가져와서 治病神이 된다. 이것은 4面의 바다에 대한 信仰과 神話의인 想像力의 表現이다. 또 이 女神들은 米食性으로서 男神들에게 勸農하는 農耕性도 나타낸다. 이 農耕性이 三姓神話의 三女神에게 五穀種들을 가져오게 한 기반이 된 듯하다.

이러한 男女神들의 ③ 座定經緯에서 射矢卜地는 狩獵 男神들의 자연스러운 經緯이었고, 凶驗을 주어서 알리는 方法은 그 宗教性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舊左面 細花里의 금상님, 金寧의 괴내깃또, 月汀面 서(幼)堂할망, 兎山 일퇴또(龍王女神)들의 이러한 座定經緯는 이 神들의 豚肉食이라는 性格과 祭物 祭法들도 풀이하고 있다.⁹⁾ 前記했던 處女堂神들은 實在했던 人物들의 억울한 怨靈으로 恨을 품은 제주도 女性史의 한 側面이라고 지적되었거니와,¹⁰⁾ 그것이 역시 이곳 巫俗信仰의 바탕 위에서의 形成이어서 宗教와 歷史를 아울러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肉食하는 男神과 米食하는 女神들의 ④ 結婚은 土着하던 男性 狩獵文化에 대해서 새로운 農耕文化의 複合이라는 文化史를 象徵的으로 反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때 2次에 걸치는 食性的 ⑤ 葛藤과 別居에서는 언

9) 玄容駿, 濟州島 巫俗의 研究, 1985. p. 208.

10) 高光敏, 前掲書, pp. 62-63.

제나 肉食은 不淨한 下位の 것, 米食이 淨한 上位의 것이라는 對立觀念이 보인다. 이것도 다 祭物, 祭法을 풀이하는 宗教性和 아울러서 農耕文化의 우월성을 말하는¹¹⁾ 文化觀의 反映이기도 할 것이다. ⑥ 追放된 子神의 海中 武勇譚은 섬의 地理性을 想像的으로 神話에 反映시킨 것으로서, 英雄敘事詩의 싹을 보여줌으로써 文學史的인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된다.

이상 全體 堂神神話의 構造가 意味하는 것은, 제주도 村落生活에서의 堂神信仰의 宗教體系이며, 神話의 世界이고, 神學이다. 그것은 宗教觀念의 體系에다 實際의 文化史, 地理性의 反映에 神話的인 想像性이 다 綜合된 것이다. 따라서 물론 北美인디언의 說話 이상으로 그것은 결코 우연한 모티프들의 集成일 수는 없다. 그래서 堂神神話는 그 悠久한 歷史에도 不拘하고 單調롭고 가난한 神話群이다. 그러나 그 가난은 결코 地瘠民貧이나 後世 儒敎合理性의 抑壓들 때문만은 아니다.

그 가난은 神話로서 宗教儀禮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宗教體系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때문인데, 거기에 오히려 眞實하고 素朴한 神話의 참모습이 있는 것이기에 더욱 값진 가난이다. 그것은 이미 化石化한 文獻神話 해석에도 큰 視角을 던져준다. 그리고 一般神, 祖上神 本풀이들과 아울러서 아직껏 살아있는 神話로 神話學에 커다란 學術價値를 발취하고 있다.

11) 玄容駿, 上揭書, p. 211.